## 뛰는 금값에 날뛰는 강도

# 금은방 주인들 전전긍긍

### 영광·보성 잇단 강·절도사건 수사 미궁

### "경찰 못 믿겠다" CCTV 설치·자체 경비

하루 새 영광과 보성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주도면밀한 범행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용의자는 물론이고 사건 단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두 곳의 금은방 강탈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사건 발생 지역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금은방 주인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 금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설 대목까지 겹쳐 금은방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미덥지 못한 경찰에 의존하기 보다는 앞다퉈 가게 안팎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답보＝지난 24일 오후 6시15분께 영광군 영광읍 A금은방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핵심은 범인들이 금은방 건물 바깥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의 전원을 꺼 건물 내 CC-TV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점. 이는 이번 사건이 사전답사 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사건해결의 열쇠인 CC-TV 분석 작업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장소 주변 도로에 용의자들이 오간 장면이 찍혔는지의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지금껏 밝혀진 것은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2개가 전부다.

전날 새벽 1시께 보성군 벌교읍 B금은방에서 일어난 절도사건은 범인이 도구를 이용해 출입문 열쇠를 자른 뒤 침입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유일한 단서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전문털이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은방 주인들 "경찰 못 믿어"＝영광과 보성의 금은방 강·절도 사건 해결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금은방 주인들이 자체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만 믿고 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 C금은방은 최근 가게 안팎에 CC-TV를 설치하는데 136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C금은방 인근에 위치한 D금은방도 가게 내에 CC-TV 2개와 경보장치 등을 설치했다. D금은방은 매달 10만원 가량을 무인경비 업체에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비경계 강화에도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찰의 방범 체계와 각종 첨단 장비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초 동구 E금은방에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고, 앞서 한 달 전 동구 F금은방에서 80만원 상당의 팔찌가 도난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C금은방 주인 이모(여·46)씨는 "지난해 가게 안에서 귀금속을 도난당했는데, 아직까지 못 잡고 있다"며 "TV에서 금은방 절도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떨려서 밤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가 고시한 국내 순금 소매가격은 3.75g(한 돈)당 18만6천원으로 전날보다 1천원 가량 올랐다. 이는 1년 전보다 2만6천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짐승같은 어른'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타당

### 열두살 소녀 성폭행 출산케 한 40대

### 광주고법, 징역 15년 1심 판결 확정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40대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6일 선배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당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3년을 더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성폭행해 장애아를 임신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 나주에 있는 선배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청각장애인인 A씨가 잠들자 A씨의 딸(12)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이 낳은 아이는 신체적 장애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양됐다.

광주고법 손진홍 공보판사는 "이씨가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생필품 행복나눔** 26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필수품 등을 모아 '행복나눔 푸드마켓 북구점'에 전달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경찰청 첫 인사교류

# 광주 경찰들 불만 팽배

### 2,500명 설문조사

지난 2007년 7월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경위급 이하 경찰관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양 경찰청은 최근 경위급 인원은 많은 반면 순경·경장급 인원이 부족한 계급간 불균형과 자녀 양육, 부부경찰관 문제 등 인사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 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대대적인 인사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간 인사는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지난 25일 경위급 이하 직원 2천500명을 대상으로 '광주와 전남경찰청 간 인사교류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양 경찰청 간 인사교류 희망자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9개 문항으로 된 설문조사에는 소속·계급·이름을 적도록 하고, 인사교류 확대 찬성 여부와 일정기간 전남경찰청 근무 후 광주경찰청으로 조건부 복귀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중 '전남경찰청 근무희망자가 없을 땐 부득이하게 광주경찰청 경위 승진자를 일정기간 전남경찰청 근무 후 원소속 복귀 조건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라고 의견을 묻는 7번 문항이 광주경찰청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경찰 K경사는 "경위 승진 후 내려가더라도 다시 원소속으로 복귀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누가 내려가려고 하겠느냐. 수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데, 이번 설문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광주경찰 L경위는 "인사교류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 소속과 계급·이름을 적는데, 어느 직원이 솔직히 답하겠느냐"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일 뿐"이라며 "현재 양 경찰청 간 인사교류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카드빚 고민 20대 女 음독 숨져

### 생활비 등 1,7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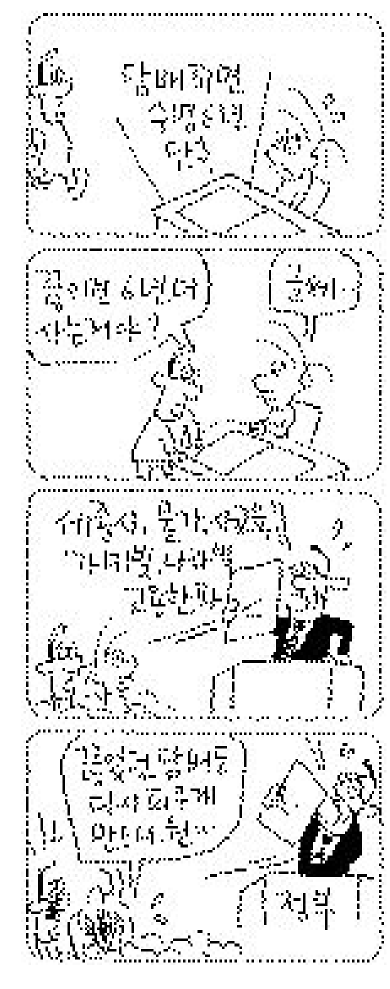
26일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김모(여·26·경기도 수원시)씨가 음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씨는 지난 23일 밤 9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약을 마시고 쓰러졌다가 남자친구(26)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가족이 있는 광주로 왔다.

경기도 수원의 모 전자회사 직원인 김씨는 매달 방세와 생활비 등으로 인해 1천700여만원의 카드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음독 당시 김씨의 방에서는 '가족들과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A4용지 2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카드빚을 고민했다"는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돈을 갚지못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윤참 〈8015〉 김종두




### 대학 일방 급여변경 제동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6일 안모(46)씨 등 전남 모 대학교 교수 6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인당 1천300여만~7천100여만원 등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교수 등은 대학 측이 2005~2008년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급을 뺀 임금을 주자 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1만원 빌려달라" 거절에 친딸 살해

쌍나팔

○…서울동작경찰은 26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친딸을 살해한 장모(4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자신의 집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발급비 1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24)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장씨는 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시신을 이불과 신문지로 덮어 집주인 소유의 빈 옆방에 3일간 숨겨둔 혐의도 추가.

○…경찰은 사기를 당해 빚을 지고 있던 장씨는 딸이 무시하는 말투로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연합뉴스